



2018년 3월 11일(제866호) 시순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한 걸까?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는 질문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성당과 떨어져 냉담까지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또다시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서 복되게 살다가 어느새 교만해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사랑자체인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당신의 계약을 완성하시고자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인간을 당신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진 인간은

자신 왕권에 대립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자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을 내려주십니다. 진노와 심판이 아닌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무엇이 진정 올바른 삶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본인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형으로 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요한 12,45)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던 예언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야 하고 혹 그 불의가 왕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기에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자 싸워야 합니다.



이지성(임미누벨) 신부
해군교육사(해군 교육사명부) 상당 주일

제 1 특 시 2역대 36,14-16.19-23

회 답 송 ◎ 애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제 2 특 시 에페 3,4-10

복음 본보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 음 요한 3,14-21

영 성 제 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진리를 살다

성당의 중심인 감실(?)

성당의 중심은 제대이므로 성당 안에 들어설 때 제대를 향해 인사하는 것이 옳다고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일깨우지만 실제 많은 본당에서는 제대가 아닌 감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례 중에는 제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전례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감실이 중심이 된다고 주장(?) 하기도 합니다. 성당의 중심이 때에 따라 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성당들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즉, 감실이 제대 뒤 성당 벽 중앙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제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대와 감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서로 다두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진대, 오늘날 각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제대와 감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요?

감실에 관한 간단한 역사

제대와 감실 사이에 쓸데없는 오해가 생겨난 까닭을 알려면 먼저 감실의 존재이유와 그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생겨난 아주 이른 때부터 미사 중에 축성한 빵을 보존하는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들이나 병에 걸려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처럼 성당이 있던 것은 아니고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가정집에서 미사를 거행하였기 때문에 성당 안에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사제의 집에 성체를 보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교 자유를 누리게 됨에 따라 성당이 건축되었으나 성체를 보관하는 장소는 여전히 성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7~8세기의 문헌에는 성체가 제의방에 보관되어 있음이 나타납니다. 미사 중에 축성한 빵을 쉽게 보존하고 미사 밖에서

제대와 감실의 관계

사용될 성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의방이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가 봅니다.

그러나 중세에 접어들면서 신자들의 신심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천사주의” 또는 “윤리적 엄격주의”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죄인의 마음으로 어찌 성체를 모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널리 퍼져서 미사 중에 영성체를 멀리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사는 라틴어로 바쳤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드러지는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성찬례 자체보다는 대중 신심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미사 중에 축성된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믿음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시다는, 성체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믿음이 신자들의 마음을 잡아 당겼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영성체는 하지 않고 대신 성체를 “바라보는” 영광을 갖고자 열망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열망은 결국 성찬 전례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의 축성 후 신자들이 볼 수 있게 받들어 올리는 예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신 성체를 성당의 가장 고귀한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여 그때까지 성당의 중심 자리에 놓여 있던 제대 위에 감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실은 신자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제대를 물리치고 성당의 중앙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실에는 화려한 장식이 따름은 물론, 예수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해 언제나 빨간 등을 켜두는 관행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른 / 대구교리신헌집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새동지

아무것도
못 품을 것 같이 보이는
가시덤굴 사이로
갓 날갯짓을 배운
참새 새끼 무리가
빼꼼히 모여
놓고 있더라.
그래 가시덤굴이
안전하겠지.
참 내가 못보고
편견으로
사는 게 많다 싶습니다.

상화이야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림(제단화)



루벤스 (1577-1640)
1612-14년 作,
패널 위 유화 421 X 153 cm
엔트워프 대성당, 벨기에 엔트워프

엔트워프의 민간 방어군이었던 궁수 조직이 루벤스에게 엔트워프 대성당의 주 제대 바로 옆에 걸릴 중요한 제단화를 주문한다. 궁수들의 수호성인은 크리스토퍼 성인으로 이는 ‘Christ Bearer’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지닌 자, 옮기는 자, 품에 안은 자’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제대화 걸면과 내부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일단 제대화 바깥쪽에는 아기 예수를 어깨에 이고 등을 건너는 크리스토퍼 성인과, 이를 등으로 비추며 바라보는 노인이 그려져 있다.

크리스토퍼 성인과 관련된 여러 전설이 있는데, 13세기에 쓰인 ‘황금 전설’이라는 책에 따르면, 2.3m가 넘는 거대한 거인이었던 크리스토퍼 성인은 강에서 사람들을 건너게 해주는 일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은둔자의 지침을 들었고, 이에 그 일에 종사하게 된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자신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가벼울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는 그 어떤 사람이나 짐보다도 무거웠다. 힘겹게 강을 건넌 후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아이에게 말하자, 그 아이는 “당신은 온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이를 어깨에 짊어졌노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크리스토퍼는 또한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제단화를 펼치면 왼쪽 면에는 임신한 성모님과 역시 세례자 요한을 임신 중인 엘리사벳 성녀의 만남이 그려져 있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계시기에 Christ-bearer(예수님을 품에 안은자)가 되시며, 오른쪽 날개 그림은 늙은 시메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있기에 또 Christ-bearer가 되는 것이다. 이 주제는 그림의 중간 패널에 더욱더 부각되어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될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4주일: 한성대 친필 신부

◆ 교구장 동정

- 회의
 때·곳: 3월 13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참사회의 14:00, 사제평의회 16:00
- 국방대(국방대학교) 성당 축성식
 때: 3월 17일(토), 10:30

◆ 군중교구 교육국 직원 모집

- 자격 : 대졸 이상, 운전 가능자
- 인원 : 1명
- 접수 : 4월 20일(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군 복음회, 반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